

네덜란드

2020 세계 혜택 및 인센티브 안내



소개

네덜란드 투자진흥청(NFIA)

네덜란드 투자진흥청(Netherlands Foreign Investment Agency, NFIA)은 네덜란드 내 외국기업의 사업체 설립, 시장 진출, 사업 확장 등에 대한 지원 및 자문을 제공하는 네덜란드 경제기후정책부(Dutch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and Climate Policy) 산하 운영기관입니다. NFIA는 지난 40여년간 세계 전역에서 온 수천개의 기업이 네덜란드 시장에 진출하여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해왔습니다. NFIA는 헤이그 본사 외에도 영국, 프랑스, 터키, 북아메리카, 아시아, 중동, 브라질,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에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NFIA는 네덜란드대사관, 총영사관 및 네덜란드 정부를 대표하는 기타 해외소재 기관뿐 아니라 광범위한 국내 파트너와 협업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서에 실린 정보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NFIA 담당자와 확인하시고, 기관 관련 최신 소식은 NFIA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각국의 NFIA 지역 사무소 연락처는 www.investinholland.com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안내서에 기재된 정보는 NFIA가 엄선한 자료로 취합하여 당시 가장 정확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문서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이로부터 어떠한 권리도 파생되지 않습니다. 2020년 1월 15일 취합

2020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 안내

목차

• 외국인 투자 및 기업 유치	4
○ 서문	4
○ 경쟁력 있는 법정 법인세율	4
○ 이노베이션 박스: 7% 실효세율 부과	4
○ 유럽본사 유치 노력의 일환인 참여면세제도	5
○ 연결납세가 가능한 재무적 공동체 과세제도	5
○ 결손금 공제: 1년간 소급 공제 및 6년간 이월 공제	5
○ 사전해석제도를 통한 불확실성 해소	5
○ 정상가격 원칙(arm's length principle)에 근거한 이전가격 정책	5
○ R&D 투자 인센티브: R&D 인건비 공제(WBSO)	5
○ MIA/Vamil: 친환경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6
○ 에너지 투자공제(EIA): 지속 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세제혜택	6
○ 외국인 근로자 대상 30% 비과세 제도(30% facility)	6
○ 이중과제 방지를 위한 광범위한 조세조약망 구축	6
○ 조약에 근거한 원천세율 인하	7
○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통한 현금유동성 확보 지원	7
○ 세무당국의 적극적인 협조	7
○ 세관당국의 실용적·예방적 접근법	7

외국인 투자 및 기업 유치

서문

네덜란드는 유럽 내 경쟁력 있는 16.5% 법인세율(최초 과세 대상 이윤 200,000 유로까지 16.5%, 200,000 유로 초과에 대해서는 25% 부과) 및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외국기업에게 기업 친화적인 세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범위한 조세조약망 구축, 고급 외국인력 대상 특혜 제공, 향후 세무관계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등 다국적 기업이 네덜란드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각종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주요 세제혜택

- 25%의 비교적 낮은 법정 법인세율(최초 200,000 유로의 16.5%)
- 적격 수익에 대해 7% 실효세율 혜택을 제공하는 이노베이션 박스(Innovation box)제도
- 적격 보유지분을 통해 얻는 모든 혜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참여면세제도(participation exemption regime)
- 그룹 내 기업간 연결납세가 가능한 재무적 공동체 과세제도(fiscal unity regime)
- 결손금 발생 시 1년간 소급 공제, 6년간 이월 공제 가능
- 네덜란드 세무당국으로부터 세법에 대한 사전해석을 확보하여 향후 세무문제 관련 불확실성 해소(ATR)
- OECD 이전가격지침서(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에 의거한 이전가격 정책 및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dvance Pricing Agreement, APA)
- 적격 R&D 인건비, 기타 R&D 관련 비용 및 투자에 대한 R&D 세액 공제(WBSO)
- 친환경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MIA/Vamil)
- 지속 가능한 에너지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EIA)
- 외국인 근로자 대상 세제특혜(30% 비과세 제도)
-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광범위한 조세조약망 구축 및 배당금, 이자, 로열티에 대한 원천세 감면(이자, 로열티의 경우 최대 0%)
- 이자 및 로열티에 대한 원천세 면제
- 수입 시 부가세 납부 유예제도
- 세무당국의 적극적인 협조
- 세관당국의 실용적·예방적 접근법

경쟁력 있는 법정 법인세율

2020년 기준 법인세는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 0 - 200,000 유로 이하: 16.5%
- 200,000 유로 초과: 25%

2021년 1월 1일부터 법인세율이 21.7%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최초 과세 대상 이윤 200,000 유로까지는 기본 법인세율이 15%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특히)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이윤에 대해서 특별세율을 적용 받는 방법도 선택 가능합니다(Innovation Box).

다음 문단을 참조하십시오.

이노베이션 박스: 7% 실효세율 부과

- 이노베이션 박스는 R&D 신고를 이행한 자체 개발한 무형자산에서 창출되는 이익에 대해 7%의 실효세율을 적용합니다.
- 네덜란드 이노베이션 박스제도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노베이션 박스 혜택을 받으려면 R&D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대기업의 경우 특히, 전용실시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식물육종권, 약품 증명서 등 추가적인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에는 상한이 있으며, R&D의 자체수행 또는 외부위탁, 참여기관 간 R&D 비용 분담비율 등에 따라 상한액이 결정됩니다. 외부위탁 비중이 높을수록 해당 R&D 활동에서 발생하는 무형자산에 할당되는 이윤 상한이 낮아집니다.
 - 7% 세율은 법인세 신고 시 청구합니다. 7%의 저세율은 실질적으로 이노베이션 박스에 할당 가능한 이윤의 72%를 면제한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통상 법인세율인 25% 적용 시, 적격 수익에 대한 실효세율은 약 7%가 됩니다.

- 무형자산의 개발 비용 및 무형자산으로부터 비롯된 손실의 경우, 통상 세율인 25%만큼 공제되며 7% 실효세율은 개발 비용 및 손실액을 초과하는 수익에 적용됩니다.
- 이노베이션 박스의 적용여부는 선택 가능합니다.
- 이노베이션 박스 공제율은 2021년부터 9%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과세최저한 관할권과의 조율 위함).

유럽본사 유치 노력의 일환인 참여면세제도

참여면세제도는 네덜란드 법인세법 중 가장 중요한 조항 중 하나로, 수 많은 기업이 유럽본사로 네덜란드를 선택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본 제도의 목적은 자회사의 이익이 모회사로 편입되는 경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참여면세제도 하에서 배당금 및 자본 손익은 법인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즉, 자본 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니며, 자본 손실은 적격 청산 손실을 제외하고 공제되지 않습니다.
- 간접투자(portfolio investment)가 아닌 5% 이상의 지분참여의 경우, 추가 요건 없이 면세 혜택 대상이 됩니다.

연결 납세가 가능한 재무적 공동체 과세제도

- 네덜란드 기업(또는 네덜란드 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기업) 집단은 재무적 공동체 구성을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 제도는 공동체 구성회사의 소득을 통합하여 신고할 수 있게 하는 과세제도입니다.
- 본 제도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체 구성회사의 손실이 다른 구성회사의 이익과 상계처리
 - 공동체 내에서 한 구성회사의 자산이 다른 구성회사로 이전 시 법인세 면제
 - 내부거래 제거

결손금 공제: 1년간 소급 공제 및 6년간 이월 공제

- 네덜란드 거주 및 비거주 납세기업은 결손금 발생시 1년간 소급 공제, 6년간 이월 공제할 수 있습니다.
- 2019년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9년간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 결손금은 손실증명을 통해 네덜란드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사전 해석 제도를 통한 불확실성 해소

사전조세통칙 적용제도(Advance Tax Ruling, ATR)와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dvance Pricing Agreement, APA)는 네덜란드 조세법의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사전해석제도의 목적은 향후 조세처분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데 있습니다.

네덜란드 국세청은 로테르담에 국제조세 확실성 전담팀을 두고 있습니다.

-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는 네덜란드 기업과 외국 기업 간의 제품 또는 서비스 거래에 적용되는 가격(이전가격)의 수용 가능성을 사전에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사전조세통칙 적용제도는 참여면세제도 신청 시 확실성 보장 등 국제 기업 구조의 세무 특징에 대한 합의입니다.

정상가격 원칙(arm's length principle)에 근거한 이전가격 정책

- 네덜란드의 법인세법은 특수관계기업(그룹 내부 관계회사) 간 재화 및 용역 거래 시 정상가격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수관계기업 간 거래가격 책정에 대한 지침은 OECD 모델조세조약 및 OECD 이전가격지침서에 명시된 정상가격 원칙을 기반으로 한 포괄적인 정책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R&D 투자 인센티브: R&D 인건비 공제(WBSO)

- WBSO는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본 제도를 통해 기업은 R&D 인건비를 비롯하여 프로토타입 제작비, 연구장비 구입비 등 기타 R&D 관련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국세청에 근로소득세 신고 시 인건비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들을 위해 R&D 인건비 및 기타비용 중 최초 350,000 유로의 32%를 공제하며, 그 이상은 R&D 비용의 16%를 공제합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R&D 비용 중 최초 350,000 유로의 공제율은 더욱 높습니다(40%).
- 회사(또는 법인)가 받을 수 있는 연간 공제 한도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MIA/Vamil: 친환경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 MIA 프로그램은 적격 환경 친화적 투자에 대해 과세소득에서 투자 비용의 최대 36%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각 자산의 투자비용은 최소 2,500 유로 이상이어야 하며, 역년 기준 최대 25,000,000 유로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Vamil 프로그램은 기업이 적격 친환경 투자의 75%에 대한 감가상각을 즉시 실행할 수 있게 하여 유동성과 이자 이득을 제 공합니다. 나머지 25%는 일반적인 투자 감가상각을 적용합니다.
- 네덜란드 기업청(RVO)에서는 MIA/Vamil 프로그램을 위해 매년 '환경 리스트(Environmental List)' 라고 불리는 적격 친환경 투자 목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투자공제(EIA): 지속 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세제 혜택

- 에너지 절감 설비에 투자하거나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활용하는 기업의 경우, 투자 비용의 일정 비율을 제품 구입연도의 과세대상 이윤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비용의 45%를 설비 구입연도의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에너지 절감 투자액은 최소 2,500 유로가 되어야 하며, 역년 기준 최대 1억 2천 4백만 유로 규모의 에너지 투자공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IA 적용 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년 RVO가 공시하는 에너지 리스트(Energy List)에 포함된 투자
 - 신규 고정 자산에 대한 투자로 구매 후 3개월 이내에 적용
 - 관련 자산에 대해 받은 투자 보조금은 구입 또는 생산 비용에서 공제되어야 함(단, 운영 보조금의 경우 공제되지 않음).

외국인 근로자 대상 30% 비과세 제도(30% facility)

- 네덜란드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총 급여의 최대 30%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30% 비과세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의 취지는 해외 거주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충당해주기 위함입니다.
- 본 제도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급여의 최대 30%를 비과세로 지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때, 급여에는 상여금, 스톡 옵션 등 부수적이고 유연한 형태의 소득도 포함됩니다. 퇴직금과 연금은 제외됩니다.
- 30% 비과세 적용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가 네덜란드에서는 찾아볼 수 없거나 매우 드문 특화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함. 근로자는 다음의 최소 과세소득 수준을 충족시켜야 함:
 - 총소득 최소 37,296 유로 이상(비과세 수당 제외)
 - 30세 미만의 석사(MSc) 및 박사학위(PhD) 보유자의 경우, 총소득 최소 28,350 유로 이상(비과세 수당 제외)
 - 과학자 및 연구자의 경우, 최소 소득 기준 없음
 - 근로자는 해외에서 채용되어야 함
 - 고용주는 네덜란드 원천징수의무자여야 함
- 근로자는 고용 전 24개월의 최소 3분의 2를 네덜란드 국경에서 반경 150km 밖의 해외에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 비과세 혜택은 5년(60개월)간 제공됩니다.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광범위한 조세조약망 구축

네덜란드는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세계 100여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유럽 내 가장 광범위한 조세조약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조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통 네덜란드 측에서 일방적으로 이중과세를 감면해 줍니다. 납세자들은 또한 유럽연합 지침 및 법률이 보장하는 유리한 규정들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가 소득 및 양도소득에 관해 체결한 대부분의 이중과세방지협약은 경제협력개발 기구(OECD)가 발행한 모델조세조약을 따르고 있습니다.

조약에 근거한 원천세율 인하

- 네덜란드 소재 기업이 지불하는 이자나 로열티는 원천 과세에서 제외되고, 네덜란드 소재 기업에게 지불한 이자나 로열티에 대한 외국 원천세 또한 조세조약을 통해 인하 또는 면제됩니다. 적격 EU 로열티 및 이자의 경우, EU 이자 및 로열티 지침(EU Interest and Royalty Directive) 이행법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1년 1월 1일부터 매우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국가, EU 조세비협조국 리스트에 속한 국가, 특정한 조세 악용 사례의 경우 이자 및 로열티 지불금에 대한 원천세가 도입됩니다.
- 네덜란드에서 배당금 원천세에 대한 법정세율을 15%입니다. 그러나, 조세조약으로 보호되는 주주에 대한 배당금은 원천세율이 인하됩니다(일반적으로 5% 또는 0%까지도 인하). 적격 EU 모회사에 배당금을 지급한 경우, EU 모회사 지침(EU Parent/ Subsidiary Directive) 이행법에 따라 배당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2018년부터는 특정 조건에 한해 네덜란드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 내 모회사에 지급된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신설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통한 현금유동성 확보 지원

- 네덜란드는 유럽 내 물류국가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정기 부가세 신고 시기까지 수입부가세 납부를 유예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reverse-charge mechanism)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본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기업은 세관 신고 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유예 후 정기 환급 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 본 제도를 이용하려는 수입회사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를 취득하려면 네덜란드에서 국내 사업자 또는 현지 내 고정사업장을 보유한 외국 사업자로 부가세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네덜란드로 수입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 네덜란드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 사업자의 경우, 세무 대행업체(fiscal representative)를 통해 부가세 대리납부 허가를 취득하고 부가세 납부를 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당국의 적극적인 협조

네덜란드 국세청은 세법이 특정 사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투자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방성과 접근성 강화를 위해 “외국잠재투자자지원센터(Liaison for Potential Foreign Investors)”를 설립했습니다. 지원센터는 외국투자자가 현재 계획 중인 사업과 관련된 세무문제를 조기에 확실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조사관은 기업과 지원센터 간의 협의사항을 따르게 됩니다. 지원센터는 국제조세 확실성 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해당 팀은 이전가격에 관한 사전합의를 체결하고, 국제적 성격의 사안에 대해 사전조세통칙 적용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국세청은 납세자와 신뢰, 투명성, 상호이해에 근거한 발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평적 세원관리제도(Horizontal Monitoring)를 도입했습니다. 본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과세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해준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신고내용에 대한 사후검증이 줄어들어 행정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세관당국의 실용적·예방적 접근법

유럽연합으로 반입되는 제품은 유럽연합 관세법 조항에 따라 반입 시점부터 통관대상이 됩니다. 세관 검사관은 신뢰할 수 있는 정부 파트너가 기업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품의 수입 및 수출에 있어서 귀사에게 가장 적합한 통관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협의의 장이 열려 있습니다. 네덜란드 세관은 국제 무역 활성화와 관세절차 최적화를 위해 실용적이고 예방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네덜란드를 수입 기지로 선호하고 있습니다.

Invest in Holland

www.investinholland.com